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폭염 극복 위해 성주군에 생수 기부

추홍식 | 승인 2025.07.17 17:51

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15일 성주군청에서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고자 약 200만 원 상당의 530ml 생수 6천600개를 성주군에 기부했다.

성주지사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며, 특히 폭염에 취약한 장소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수가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.

이돈문 성주지사는 “농업 현장에서 날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, 현장의 목소리를

직접 듣는 공사로서 이번 기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”며, “성주군민들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후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추홍식기자 chhs@idaegu.co.kr



추홍식

저작권자 ©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